

## 안창호의 딸 안수산



도산 안창호를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겁니다. 안창호는 190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떠난 이후 미국 내 한인들을 집결시키고 교민 사회를 형성하여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입니다. 안창호에게는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셋째이자 장녀인 안수산은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단결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활발한 독립운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1942년 안수산은 미 해군에 입대했는데, 처음 지원했을 때는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지원해 군인이 된 안수산은 해군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군인이 돼 포격술 장교가 됐습니다. 1946년부터는 국가안보국(NSA)에서 암호를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1959년 국가안보국에서 은퇴한 안수산은 LA로 이사해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안창호가 활동했던 흥사단의 활동 기록을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기증해서 아버지의 업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2003년 캘리포니아 28구역 주 의회는 안수산을 '올해의 여성'으로 뽑았습니다. 2006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아시안 아메리칸 저스티스 센터(Asian American Justice Center)의 '미국인 용기상'(American Courage Award)을 받았습니다. 2015년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는 3월 10일을 '안수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